



6·2 지방선거 정책대결 양상

세물이 사라지고 '매력 공약' 개발 골몰

6·2지방선거는 '바람' '세물'이 '이념대결'이 사라진 '정책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광주시장·전남지사 예비후보 캠프가 주도하고 있다. 보다 나은 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가 확보에 발 벗고 나서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 단골메뉴 외에 생활형 풀뿌리 공약을 만드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정동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통한 창조적 문화도시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 후보는 이번 정책 개발에 전남 교수 10여명을 투입했다.

강운태·이용섭 의원은 자신들이 각각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정책연구원과 시민정책개발원 등의 조직을 통해 세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인 토론회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만들고 있다. 양형일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현재 '휴먼시티, 복지공동체-광주' 슬로건을 내걸고 이에 걸 맞는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중이며, 정찬용 예비후보는 부시장급을 포함해 시민대표를 대거 참여시키는 '시민참여형 지방정부'를 꾸리는 내용의 공약을 만들고 있다. 윤난실 진보 신당 광주시장위원장은 진보정당다운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생활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석형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도 학계 인사와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벤처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정책 전문가 그룹인 자문정책단을 운영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20~30대 유망의 정책조사단도 별도로 돌 예정이다.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현직 단체장들도 정책개발에 관한 한 다른 후보들

에게 경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처럼 지방정부로서 약속 이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단골 메뉴보다는 생활형 풀뿌리 공약이 유권자들을 움직인다고 보고 삶의 질 향상, 교육 등의 분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이를 위해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의 정책 전문가와 자문교수단을 확보하고 정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거캠프 별로 인력 경쟁탈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다.

앞서 광주시장·전남지사 입지자들은 야구장 건설과 F1 자동차 대회 등 지역 현안을 놓고 뜨거운 '정책 공방'을 벌여 정책 선거 가능성을 보여줬다.

강우원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민주당이 강제한 광주·전남에선 세종시 수경 등 중앙정치 이슈보다는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예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에서 만드는 기아 신차 '스포티지R'

세계 최초 'T후진' 자동주차

다음달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 후속모델 신차 '스포티지R'에 세계 최초로 T자형 후진주차 자동 시스템이 적용될 전망이다.

기아자동차는 다음달 23일 출시되는 신형 '스포티지R'(프로젝트명 SL)에 T자형(직각) 후진주차와 평행주차를 자동으로 해주는 '자동 직각주차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자동주차 버튼을 누르면 차량이 센서로 주차공간을 파악하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변속기로 후진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 페달로 속도를 조절 해주면 차량이 자동으로 운전대를 움직여 최적의 주차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 장착여부는 소비자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값은 40만원 정도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 방식이 도입되면 후

T자형으로 자동주차하는 자동차



진 주차에 서툰 초보자나 여성 운전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오는 5월 나오는 기아차 로체 후속 차종 'K5'와 8월 출시되는 현대차 신형 아반떼(MD)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쇼트트랙 이정수 첫 금

'한국의 효자종목' 쇼트트랙에서 금빛줄기가 시작됐다. 한국 대표팀의 새로운 간판 이정수(22·단국대)는 14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콜리세움에서 벌어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회 첫날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17초611로 결승선을 통과

해 1위를 차지했다. 한국 대표팀의 첫 번째 금메달이다. <관련기사 18면> 이승훈(22·한국체대)도 이날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천m에서 은메달을 획득,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9~2010시즌 월드컵 랭킹 1위에 오

르는 등 최상의 컨디션을 보였던 이정수는 생애 첫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걸어 대표팀 선배 이호석(25·고양시청)과 성시백(24·용인시청)을 따돌리고 한국 쇼트트랙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올랐다. 한편, 피겨 스케이팅에서 대회 사상 첫 금을 노리는 김연아는 오는 24일 오전 9시 30분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을 통해 첫 경기에 나서며, 26일 오전 10시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 출전, 당일 오후 1시께 금메달 획득 여부가 확정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머나먼 귀경길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호남고속도로 서전주 나들목. 사흘간의 짧은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터로 향하는 귀경 차량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있다. (행기 조종 : 광주소방항공대 대장 박창순, 부기장 이정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알림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 연중 시민강좌

즐기세요, 현대미술의 세계

광주일보는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과 공동으로 현대미술 명품강좌를 연중 운영합니다. '현대미술과 인문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 강좌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와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문화도시의 시민으로서 현대미술에 대한 안목과 문화마인드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국제 미술계의 스타급 큐레이터들과 국내 대표 평론가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 입학

● 2월19일~12월17일, 매달 셋째 주 금요일(9월만 둘째주 금요일) 오후 3시~5시, 총 11차례 강의.

● 장소: 광주시 서구 농성동 311-1번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옛 전남도지사 관사) 세미나실.

● 2월19일=뉴욕속의 한국미술



V. 탈리아 미술평론가, 전시기획자, 미국 존 제이 칼리지 교수,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 겸임교수.

● 3월19일=예술의 인문학적 사고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재단 상임부이사장, 제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뉴욕 매체미술관장 역임.

● 4월16일=북경 따신즈 798지역의 형성



김성희 홍익대 대학원 부교수, 2008 부산비엔날레 커미셔너, 2007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커미셔너.

● 5월14일=저항과 자유에 관한 로망



홍성담 관화가, 서양화가. 2009 서울 평화박물관, 2008 제주 아트스페이스 개인전.

● 6월18일=현대문명과 예술의 역할



홍가이 한국외대 언어철학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학, 영국 캠브리지대학에서 강의.

● 7월16일=명화에 나타난 리더십



이주현 미술평론가, 아트 스토리텔러, 학교재, 아트스페이스 서울관장 역임.

● 8월20일=도시와 비엔날레의 관계



김선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10 미디어 시티 서울 총감독, 2005 베니스 비엔날레 커미셔너.

● 9월10일=동아시아 미술 주변과 중심



유코 하세가와 도쿄 현대미술관 학예실장, 2002 상하이 비엔날레·2010 상파울루비엔날레 공동 큐레이터.

● 10월15일=이미지·매체·디지털 예술



심혜련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 박사.

● 11월19일=화이트 큐빅의 종말



장경화 광주시립미술관 분관장, 뉴욕 파견근무(1년) 제1, 2회 광주비엔날레 전시기획 참여.

● 12월17일='자연의 미'란 무엇인가



배병우 서울예대 사진학과 교수, 1988~1989년 독일 빌레펠트대학 사진디자인과 연구.

光州日報社

